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일렬한심 받들어 모시렵니다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 신년사 김정은

친애하는 동지들!

우리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과 조국력사에 빛나는 이정표를 아로새긴 승리자의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새해 2016년을 맞이합니다.

나는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사회주의조선의 영상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새해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나는 영원히 당과 주체의 한길을 걸어갈 역사의 신념을 안고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드리며 모든 가정들에 화목과정이 넘쳐나고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으며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남녘의 겨레들과 해외동포들, 자주와 정의,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외국의 벗들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2015년은 뜻깊은 사변들과 경이적인 성과들로 수놓아진 장엄한 투쟁의 해,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친 승리와 영광의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백두산대국의 자랑스럽고 의의깊은 혁명적경사로 빛내였습니다.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노도처럼 떨쳐나선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백두의 혁명정신과 과감한 군민협동작전으로 영웅적인 투쟁을 벌려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들을 마련하였습니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와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과학기술전당과 미래과학자거리,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비롯하여 당의 사상과 정책이 구현된 만년대계의 창조물들과 사회주의선경마을들이 수없이 일떠서 1년을 10년 맞잡이로 비약하며 전진하는 조국의 기상을 파시하였습니다.

우리의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금속공업의 주체화에서 큰걸음을 내짚었으며 이르는 곳마다에 지식경제시대의 본보기공장, 표준공장들을 일떠세우고 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실현하여 전반적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놓았습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속에 하늘에서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날고 땅속에서는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가 달리는 자랑찬 현실이 펼쳐졌으며 사회주의바다항기, 파일항기가 넘쳐나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미더운 너저축추진수들을 비롯한 우리의 체육인들은 국제경기들에서 승리하여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전투적사기를 더욱 북돋아주었습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된 당창건 일흔돐 경축행사를 통하여 우리는 당의 두리에 천만군인이 철통같이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과 주체조선의 양양한 전도를 만천하에 파시하였습니다.

10월의 경주광장에 펼쳐진 격동적인 화폭들은 핵폭탄을 터뜨리고 인공지구위성을 쏘올린것보다 더 큰 위력으로 누리를 진감하였으며 일심단결과 총대를 필승의 무기로 틀어쥐고 투쟁하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힘찬 진군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과 민족앞에 닥친 전쟁의 위협을 막고 공화국의 존엄과 세계평화를 영예롭게 수호하였습니다.

적대세력의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책으로 하여 무력충돌로 치달던 일촉즉발의 위기를 평정하고 전쟁이라는 재앙의 난과도속에서 조국의 존엄과 안전을 지켜낸것은 군민단결의 거대한 힘,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진막강한 위력이 안아온 빛나는 승리입니다.

지난해를 우리가 더욱 기쁜 마음으로 돌이켜보게

되는것은 주체혁명의 혈통, 신념의 대를 굳건히 이어가는 우리의 청년전위들이 당에 대한 충정과 영웅적투쟁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떨친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우리 청년들은 당이 정해준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내달리며 선군시대의 청년들격정신과 청년문화를 창조하였으며 만사람을 감동시키는 훌륭한 미풍들을 발휘하였습니다. 수백만 청년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두리에 천검만검으로 뭉친 사상과 신념의 강자,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들로 역세계 자라난것은 우리의 더없는 긍지이고 자랑이며 커다란 승리입니다.

지난해의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백두의 넓과 기상을 안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 펼쳐나선 우리 인민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마련된 결실이며 그것은 조국과 혁명에 바친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고귀한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창조로 들끓고 기적으로 총만된 지난 한해를 인민군과 인민들속에서 보내며 우리 당은 애국충정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그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와 건인불발의 투쟁모습을 가슴뜨겁게 목격하였으며 인민들과 병사들의 믿음에 찬 시선과 진정어린 목소리에서 더 큰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결사옹위하는 무적의 군대와 위대한 인민이 있기에 우리는 천만산악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대업도 반드시 이룩할수 있다는것, 이것이 지난해 투쟁의 자랑스러운 총화입니다.

나는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필승의 신념을 안고 조선로동당의 위업을 헌신적으로 받들어 지난해를 영웅적투쟁과 위훈으로 빛내인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삼가 드립니다.

# 신년정사는 김정은

## 1 번 에 서 계 속

동지들!

올해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해입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긍지높이 총화하고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위대한 설계도를 펼쳐놓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주제혁명위업수행에서 역사적인 분수령으로 될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우리 당과 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입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당에 대한 불타는 총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알고 총열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래를 힘있게 파시하여야 합니다.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 습니다.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의 돌파구를 열자면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을 총진격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야 합니다.

전력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당적, 전국국가적힘을 넣어야 합니다. 지금 있는 발전소들을 정비보강하고 만부하로 돌려 전력생산을 최대한 높이며 단천 발전소건설을 비롯하여 발전능력을 새로 더 조성하기 위한 투쟁과 자연에너지를 적극 리용하여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된 전기를 절약하고 효과있게 쓰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석탄공업부문에서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여러 부문에 석탄을 충분히 대주어야 합니다.

금속공업부문에 대한 국가적인 보장대책을 강하게 세우고 김철과 황철을 비롯한 금속공장들에서 주재화, 현대화의 성과를 확대하여 철강재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철도운수부문에서 규률을 강화하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개선하여 렬차의 정상운행을 보장하며 철도의 현대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인민생활문제를 천만가지 국사가운데서 제일우선으로 내세우고있습니다.

농산, 축산, 수산부문에서 혁신을 일으켜 인민생활을 개선하는데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농업부문에서 우량품종과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며 영농공정별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알곡생산계획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합니다. 당의 부름따라 일떠서고있는 축산과 수산부문에서 생산을 빨리 장성시키고 전국도처에 건설한 양어장과 남새온실, 버섯생산기지들이 온몸을 바쳐 인민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여야 합니다.

경공업부문에서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원료, 자재보장대책을 세워 생산을 활기있게 내밀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합니다.

건설은 국력과 문명의 높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이며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보람차고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건설부문에서 당의 건설방침과 대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벌려 중요생산시설들과 교육문화시설, 살림집들을 시대의 본보기, 표준이 되게 최상의 수준에서 최대의 속도로 일떠세우며 건설의 대변영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투쟁목표를 통이 크게 세우고 내부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성장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며 제품의 질제고와 설비, 원료자체의 국산화를 중요한 정책적문제 로 틀어쥐고 힘있게 내밀어야 합니다.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산림복구전투를 본격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도시와 농촌, 일터와 마을들을 알뜰하게 꾸리며 나라의 자원을 보호하고 대기와 강하천, 바다오염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과학기술로 강성국가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고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가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합니다. 과학연구부문

에서는 주제공업,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위력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며 최첨단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야 합니다.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리고 운영을 정상화하여 근로자들이 누구나 현대과학기술을 배우도록 하며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사회직기풍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내각과 국가경제기관들에서 경제작전과 지휘를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근로자들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현대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부문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나가는 원칙에서 경제사업을 혁신적으로 작전하고 완강하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조건이 불리하고 애로가 많은수목 경제발전의 중심 고리를 정확히 찾고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경제전반을 활성화해나가야 합니다. 주제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조직건재하여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높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공화국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 하여야 하겠 습니다.

사회주의정치사상전지를 억척같이 다져나가야 합니다.

사상을 혁명의 원동력으로 삼고 5대교양에 활력을 집중하여 전체 군인들과 인민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뼈속깊이 새긴 사상의 강자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그들이 수행의 유훈 판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 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온 나라가 양양된 정치적분위기로 세차게 끓어번지도록 정치사업, 화선식선전선동사업들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 습니다.

일심단결은 주제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필승의 무기입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드락에 이여놓고 당과 사상도 승결도 발결음도 같이하며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야 합니다. 당조직들과 국가기관들은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구현하여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절대시하며 인민들의 정치적 생명과 물질문화생활을 책임지고 끝까지 돌봐주어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민심을 틀어쥐고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일군들속에서 일심 단결을 조목조목 파피하는 세도와 판료주의, 부정부패 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도높게 벌려야 합니다.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져나가야 합니다.

인민군대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중흥7면대 청호쟁위운동을 발기하신 스무푼이 되는 올해에 전군을 당의 유일적명군체제가 확고히 선 혁명적당군,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는 견결한 당의 군대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당이 제시한 4대강군화로선관철에서 전환을 일으켜나가야 합니다. 훈련의 실전화, 과학화, 현대화를 종자로 틀어쥐고 훈련일풍을 세차게 일으켜 모든 군인들을 김일성-김정일군사전략기술과 영웅적전투정신, 완벽한 실천능력을 소유한 현대전의 능수, 진짜배기싸움군들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인민 군대는 시대의 기수, 돌격대가 되어 당이 부르는 강성국가건설의 주요전구들마다에서 돌파구를 열어 제키며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적극 찾아하여야 합니다.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은 혁명의 수뇌부와 사회주의 제도, 인민의 생명체산을 노리는 계급적원수들과 적대분자들의 준동을 맹아단계에서 짓밟아버리며 로농적위군과 붉은청년군위대 대원들은 전투정치 훈련을 강화하고 향토방위를 위한 만단의 전투동원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군수공업부문에서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방공업의 주제화, 현대화, 과학화수준을 더욱 높이며 군사리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적들을 완전히 제압할수 있는 우리 식의 다양한 군사적라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하여야 합니다.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여야 하겠 습니다.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들이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하고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지적력을 겸비한 인재들을 키워내며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요구에 맞게 치료예방사업을 개선하여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 보호증진시켜야 합니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들끓게 하고 전문체육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국제경기들에서 영웅조선의 새로운 체육신화를 창조해나가야 합니다. 문예예술부문이 들고일어나 천만근민의 심장을 혁명열, 투쟁열로 불라게 하는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합니다.

도덕기강을 세우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온 사회에 건전하고 문명한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하겠 습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당의 부름이러면 한마음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는데는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주제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맡아들맡게 당의 사상과 위업을 댈 앞장에서 받들며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봉화를 추켜들고나가야 합니다.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에 서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분발하여 농업생산에서 전면을 일으켜야 합니다. 지식인들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눈부신 과학기술성과로 강성국가건설을 떠밀어 나가며 로동당시대의 문명개화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선각자가 되고 기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오늘의 총진군에서 청년들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있습니다. 청년들은 청년강국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에 깊이 간직하고 조국을 떠받드는 역설 기둥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강성국가 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일군들은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고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 나가며 인민을 위한 길에 한몸이 그대로 모태일이 되어 뿌러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인민의 참된 총부, 혁명의 유능한 지휘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서로 돕고 이끌며 단합된 힘으로 전진하는 우리 사회의 본태와 대공모를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표대는 주제의 사회주의 강국이며 사회주의의 위력은 곧 집단주의의 위력입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국가적리익, 당과 혁명의 리익을 우선시하고 앞선 단위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며 집단주의적경쟁열풍속에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자강의 길만이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존엄을 살리고 혁명과 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강성국가건설대업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반드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이룩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은 가장 절박하고 사활적인 민족최대의 과업입니다.

조국해방 일흔푼이 되는 지난해에 우리는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것을 호소 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국통일과 북남관계개선을 바라지 않는 반통일세력 들은 전쟁책동에 광분하면서 교전적전의 위험천만한 사태까지 몰아와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냈 습니다. 남조선당국은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의 흐름에 역행하여 우리의 《제체변화》와 일방적인 《제도 통일》을 로골적으로 추수하면서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이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을 분렬시킨것도 외세이며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는것도 다름아닌 미국과 그 추종 세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은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모략수동에 매여 달려면서 우리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청탁하는 술을 벌리고있습니다. 이것은 외세에 민족의 운명을 내맡기고 민족의 리익을 팔아 먹는 매국배주행위입니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가져다주지 않으며 또 가져다줄수도 없습니다.

온 겨레는 반통일세력의 사대매국적인 외세와의 공조책동을 반대하여 결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은 민족내부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공조》를 구걸하는 수처스러운 행위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은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 조건입니다.

오늘 미국의 침략적인 대아시아지배전략과 무분별한 반공화국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 핵전쟁발원지로 되고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은 해마다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핵전쟁연습을 편이여 벌려놓으며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북남관계에 엄청난 장애를 조성하고있습니다. 지난해 8월사태는 북남사이의 사소한 우발적인 사건도 전쟁의 불씨로 되고 그것이 전면전으로 번져질수 있다는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위험천만한 침략전쟁연습을 견어치워야 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군사적도발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정을 위해 인내성있게 노력하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립장입니다. 그러나 침략자, 도발자들이 조공이라도 우리를 건드린다면 추후도 용납하지 않고 무자비한 정의의 성전, 조국통일대전으로 단호히 대담해나설것입니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을 비롯한 민족 공동의 합의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에 토대하여 북남 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온 겨레는 그것이 하루빨리 리행되어 통일의 전환적구면이 열리기를 바라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무질없는 체제대결을 추구할것이 아니라 민족의 총의가 집대성되어있고 실천을 통해 그 정당성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해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은 지난해 북남외규금급 접촉의 합의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에 역행하거나 대화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것이며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앉아 민족 문제,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론의할것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이 땅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것입니다.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 환경을 마련할데 대한 우리의 공명정대한 요구를 한사코 외면하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계속 매여달리면서 정세를 긴장격화로 몰아갔으며 추종세력들을 내세워 반공화국 《인전》 모략수동에 미쳐달렸습습니다. 그러나 적들의 그 어떤 모략과 책동도 삶의 리전이고 행복의 보급자리인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빛내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의지를 꺾을수 없었습니다.

적대세력의 도전은 계속되고 정세는 의연히 긴장 하지만 우리는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을 따라 변함없이 나아갈것이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책임적인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침략과 전쟁, 지배와 억제를 반대하는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을 더욱 강화하며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 시켜나갈것입니다.

주제의 사회주의위업은 필승불패이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모두다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혁명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합니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해 2016년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



우리 조국력사에 특기할 사변들이 아로새겨진 위대한 전변의 해, 위대한 승리자의 해인 2015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 2016년을 맞이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차넘치고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해 2016년에 즈음하여 1월 1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당과 군대의 책임일꾼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군대의 책임일꾼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양옆에는 당기와 공화국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특근,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특근,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 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씨가 찍여져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새해의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새해의 인사를 드리시였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식으로 강산이 변하는

역사의 기적을 창조하며 하루하루를 보통의 백날, 천날과도 대비할수 없는 격동의 나날로 흘러보낸 자랑찬 2015년을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돌이켜보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뜻깊은 2016년을 민족사에 특기할 자랑스러운 한해로 빛내이는데 한몫 다 바칠 불라는 맹세를 다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만 계시면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이 라는 억척불변의 혁명적진념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더욱 똬뚝같이 뭉쳐 뜻깊은 새해 2016년의 장엄한 진군길을 다그쳐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사정치정보단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단행본으로 출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의 전문을 우루과이에, 에기스 36라지오 켈메나리오방송이 최근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렸다.

홈페이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을 모신 선전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를 함께 편집하였다.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머리글을 달았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원수님께서 로작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를 발표하시였다.

로작의 전문을 아래에 게재한다.

한편 방송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로작을 전문보도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를 지난해 12월 17일 우간다 캄팔라에 있는 바인자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단행본의 머리글에는 다음과 같이 적여져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서거 4돐을 맞으며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 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제526대련함부대와 제671대련함부대 사이의 쟁방실동훈련을 보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가장 치밀하고 엄격한 진행에 대처하지만 실용적 측면을 많이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형식주의, 고정적식화를 물장벌레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이제께서는 군중, 병중, 전문병부대들사이의 긴밀한 협동을 완성하고 전투행동의 불의성과 신속성, 일치성, 정확성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 군인들을 실지 싸움터에서 써먹을수 있는 전투행동조법에 숙련시킴에 대한 문제, 장비현대화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등 싸움준비완성에서 나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제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투력강화와 싸움준비완성의 자랑찬 성과로 맞이 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찌통신, 신문 《아르구멘타이 리카》, 미국의 UPI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헬남의 신문 《엔도이 년진》, 인터넷통신 전 제와 나 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도이쉴란트반제연단 인터넷홈페이지 《현지지도소식들》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나 이제리아, 도이쉴란트의 인터넷홈페이지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나라 기계제작공업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훌륭히 전변된 1월 18일 기계 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도 올렸다.

로씨야, 헬남, 민주공고, 도이쉴란트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5월9일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령도자께서는 5월9일메기공장을 조선 양어부문의 본보기, 표준공장으로 간주하고계신다.

이제께서는 이 공장에서 생산한 메기들을 군인들과 인민들이 정상적으로 공급받고있다고 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과학기술을 끌어내고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를 실현한 공장의 일꾼들을 치하하시였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파키스탄신문 《월드 트리플》, 도이쉴란트반제연단 인터넷홈페이지 《현지지도소식들》, 민주공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파키스탄신문 《메일리》는 조선인민군 제549군부대관할 15호수산업소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인디아신문 122호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양묘장을 현대화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신 소식을, 기네 국제, 국제방송, 민주공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새로 개건된 평천혁명사적지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도이쉴란트, 민주공고, 인디아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 구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구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구바 공화국 내각 수상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아 바 나

구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구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구 바 공 화 국 내 각 수 상

### 라울 까스뜨로 루쓰동지

나는 구바혁명승리 57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전체 구바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동지적인사를 보냅니다. 우리 인민은 형제적구바인민이 당신의 훌륭한 명도 밑에 당 제6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기뻐하고있으며 앞으로도 구바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낼것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반제자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의 한길에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당신이 건강하여 구바당과 정부와 인민을 명도하는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 선 로 동 당 제 1 비 서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 김 정 은

주제104(2015)년 12월 31일

평 양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 구바공화국대사관에 꽃바구니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구바공화국대사관에 꽃바구니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서 구바혁명승리 57돐에 즈음하여 주조 구바공화국대사관

군에 에우스 델 로스 안헬레스 아이세 쓰틀롱 교 쿠바공화국 특명전대사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를 지난해 12월 31일 해당 부문 일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과 중국항일혁명렬사 장물화동지의 가족, 외국의 인사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주제105(2016)년 새해에 즈음하여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 인 정일심동포가 지난해 12월 31일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씨가 적여있었다. \* \* \* \* \*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주제105(2016)년 새해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무관단장인 장정중 화인민공화국대사관 국방부관이 지난해 12월 31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

## 고 김양건 동지의 장 의 식 진 행

【평양 12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양건동지의 장의식이 12월 31일 평양에서 국장으로 진행되었다. 장의식장인 서장회관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충직한 혁명전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가장 가까운 친우로서 일관단심 당과 수령의 명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의 중국적승리를 위하여 한생을 강그러 바쳐 투쟁하여온 우리 당과 인민의 훌륭한 아들 김양건동지를 잃은 커다란 비애에 휩싸여있었다. 당과 국가, 근대의 책임일군들인 김영남동지, 황병서동지, 박봉주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박영식동지, 리영길동지, 양형섭동지, 김원홍동지, 박병기동지, 오수운동지, 김평해동지, 최부일동지, 로두철동지, 조연준동지를 비롯한 국가장외위원회 성원들,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성, 중앙기관 일군들, 고인의 유가족들이 장의식에 참가하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고인의 명구 옆에 서있었다. 고인의 유가족들, 국가장외위원회 성원들이 명구앞에 앞서고 김양건동지를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추도곡이 장중하게 울리는 가운데 고인의 명구가 발인되었다. 조선인민군 명예의장대가 명구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 장 에 게 축 전 을 보 내 시 였 다

일본 도쿄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 허 종 만 동 지 앞

나는 새해 2016년을 맞이하면서 지역당에서 제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헌신분투하고있는 의장동지를 비롯한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동포애적인사를 보냅니다.

지난해에 총련은 류체없이 복잡한 정세속에서 내외반동들의 악랄한 반총련단합책동을 파감히 짓부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유신인 총련을 굳건히 지켜냈으며 자랑찬 애국사업성파로 총련결성 60돐을 빛나게 장식하였습니다.

나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조선로동당창건 70돐과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뜻깊은 지난해에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무한한 헌신성을 지니고 총련의 강화발전과 강성국가건설, 조국통일위업수행에 뚜렷한 애국애족의 자욱을 새긴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게 되는 뜻깊은 해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성장한 총련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더욱 힘있게 펼쳐나가야 할 역사적전진의 해입니다.

나는 뜻깊은 올해에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해외교포운동사상과 명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총련조직을 튼튼히 다지고 민족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으며 새 세대들을 비롯한 각계 각종 동포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제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진기를 열어나가는데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나는 희망찬 새해 2016년을 맞으며 전체 조국인민들의 마음을 합쳐 의장동지를 비롯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축원합니다.

## 김 정 은

주제105(2016)년 1월 1일

평 양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 알제리대통령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아브델 아지즈 부테플리카 알제리대통령이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드리는 선물은 지난해 12월 15일 중국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 주조 무관단과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주제105(2016)년 새해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무관단장인 장정중 화인민공화국대사관 국방부관이 지난해 12월 31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

# 애 도 사

오늘 우리는 커다란 슬픔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충직한 혁명전사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가장 가까운 친우, 진실한 혁명동지인 김양건동지와 영결하게 됩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영광된 나날이나 시련의 나날이나 변함없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온 김양건동지는 그처럼 녀념하던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승리와 조국통일의 날을 보지 못한채 심장의 고통을 멈추고 애석하게도 우리곁을 떠나갔습니다. 김양건동지와 영결하게 되는 이 시각 우리들은 일관단심 백옥같은 총정색과 깨끗한 망심을 지니고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며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커다란 공적을 쌓아올린 혁명동지를 잃은 슬픔을 금할수 없으며 복받치는 애도의 정을 누를수 없습니다. 김양 건 동 지 의 생애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각별한 믿음과 사랑속에 능력이 있는 정치활동가로서 자라나 값있는 삶을 누려온 북한은 김양건동지가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순결과 조국통일의 날을 보지 못한채 애석하게도 우리곁을 떠난데 대한 비탄한 심정을 안고 고인을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김양건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당과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을 지니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혁명전사의 고귀한 삶과 투쟁공적은 우리 당과 인민의 기억속에 영원히 살아 빛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총대를 어깨에 짊어주고 조국보위초소에 섰던 김양건동지의 재능의 싹을 귀중히 여기시고 주체교육의 최고전수인 김일성종합대학으로 불러주시였으며 청년동맹과 대외사업부문의 일군으로 체계적으로 키워내주시는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였습니다. 김양건동지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각별한 믿음과 사랑속에 당중앙위원회 일군으로 오래동안 사업하면서 당의 대외정책실현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 커다란 공적을 세웠습니다. 당중앙위원회 국제부 지도원으로 부처 부부장, 과장, 부부장의 직책을

임하는 나날에 동지는 존엄높은 우리 당의 대외적권위를 보장하고 세계 진보적정당들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해 애써 노력한 공적을 높이 받들고 있습니다. 동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정치적신념에 의하여 당중앙위원회 국제부장의 중임을 지니고 장군님의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충직하게 보좌하면서 불세출의 신군용장이자 사회의 정치원로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백발백중으로 발휘하고 우리 혁명에 유리한 대외적환경을 마련하는데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외국방문의 길에 오르실 위대한 장군님의 인상을 위하여 직접 현지 총정색과 깨끗한 망심을 지니고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며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커다란 공적을 쌓아올린 혁명동지를 잃은 슬픔을 금할수 없으며 복받치는 애도의 정을 누를수 없습니다. 김양 건 동 지 의 생애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각별한 믿음과 사랑속에 능력이 있는 정치활동가로서 자라나 값있는 삶을 누려온 북한은 김양건동지가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순결과 조국통일의 날을 보지 못한채 애석하게도 우리곁을 떠난데 대한 비탄한 심정을 안고 고인을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김양건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당과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을 지니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혁명전사의 고귀한 삶과 투쟁공적은 우리 당과 인민의 기억속에 영원히 살아 빛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총대를 어깨에 짊어주고 조국보위초소에 섰던 김양건동지의 재능의 싹을 귀중히 여기시고 주체교육의 최고전수인 김일성종합대학으로 불러주시였으며 청년동맹과 대외사업부문의 일군으로 체계적으로 키워내주시는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였습니다. 김양건동지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각별한 믿음과 사랑속에 당중앙위원회 일군으로 오래동안 사업하면서 당의 대외정책실현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 커다란 공적을 세웠습니다. 당중앙위원회 국제부 지도원으로 부처 부부장, 과장, 부부장의 직책을

## 민족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 가 드 립 니 다

은 거머에게 통일강국의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더욱 북돋아주는 희망찬 새해의 이 아침 반세기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절세위인을 우리더 끝없이 달려가는 남북겨레의 열화같은 흥모의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 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축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족사의 갈피에 또 한페이지의 자랑스러운 년륜을 아로새긴 주제104(2015)년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명도 밑에 신군조선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역사에 류례없는 세기적변혁과 영웅신화를 창조하고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상을 단방에 파시한 위대한 승리의 해, 긍지높은 대정사의 해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해의 첫아침 역사적인 신년사에서 백두의 기상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목표와 방향을 뚜렷이 명시하시고 은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로를 열어나갈데 대한 조국통일의 진로를 밝히시어 새로운 상승기에 들어선 공화국에 비약과 전진의 더 큰 나래를 달아주시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적인 투쟁의 앞길에 밝은 전망을 펼쳐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주제혁명의 중대한 력사적시기에 맞게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올려세우기 위한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셨으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백두산대국의 태양, 영원한 수령으로 발돋움시킨 태양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더욱 높이 펼칠수 있게 하여주시었습니다.

북새출의 신군명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에도 철의 신념과 무비의 담력으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부분별한 군사적도발행동과 반공화국악화행동을 걸음마다 좌절시키셨으며 이북군민의 정신력을 총괄발전시켜 사회주의경제강국, 명명우거진 모든 전역에서 혁명적인 기적과 비약을 이룩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최첨단수준의 신형한함선 로케트시험발사와 전핵잠수함 탄도탄중성미탐사선 자위적국방력에 토대한 세계적전위 군사강국으로서 공화국의 위용을 더욱 힘있게 파시한 장대한 희생이었습니다.

창조와 건설의 위업을 모시어 이북에서는 새로운 건설속도, 심비로운 조속속도창조의 거대한 열풍속에 미래과학기술과 과학기술전당, 백두산영웅평년발전소를 비롯한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는 놀라운 현실이 편이 펼쳐졌습니다.

북편의 라선땅에서 일어난 전위투쟁의 기적과 이북의 이르는 곳마다 펼쳐진 천지개벽, 천도개벽의 눈부신 화폭들은 민중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민중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는것을 최고의 활동원칙, 최대의 투쟁목표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애국애민의 사상과 무한한 헌신의 결정을입니다.

지난해 10월 행성의 이복을 집중시키며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거행된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행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광명한 미래에로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이북군민의 혁명적기상과 무수한 화폭들을 위대한 만민하에 파시한 승리의 대정사적축전이였으며 민중중심, 민중존중, 민중사랑의 정치가 철저히 구현되어 로동당만세소리, 입심단결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는 이북의 참모습을 온 세상에 펼쳐보인 특대사건이었습니다.

성대한 당창건 70돐 경축행사에서 조선로동당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와 모든 영광을 민중에게 돌려주시며 사랑하는 전계 이북민중에게 조선로동당을 대표하여 깊이 머리숙여 드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린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귀한 영광을 우리더 우리 남대겨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주권

의 리념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참다운 애민명도자의 모습, 단고철세의 위인상에 붙이는 때복과 환희를 금할수 없었습니다.

조국해방 70돐, 6.15공동선언발표 15돐이 되는 뜻깊은 지난해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통일운동에서 대변한, 대변력을 이룩하실 용지를 표명하시고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통일 이란 조치들을 편이여 취해주시며 온 겨레를 자주통일위업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지난해 8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부분별한 군사적도발행동으로 하여 일촉즉발의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었을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무비의 담력과 신군의 배짱, 평화수호의 결단으로 험악한 사태를 단호히 평정하시고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시었으며 남북관계에서 전위투쟁의 전한권을 마련해주셨습니다.

태양같은 인품과 한없이 넓은 도량, 따스한 인정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정세가 긴장한 속에서도 리히호너사의 평양방문과 5월1일경기장에서의 남북로동자통일축구의 합성, 민간교류의 왕개가 이어질수 있었으며 날이 갈수록 이 남민중의 위인경모열기는 경향각자를 뜨겁게 달구고있습니다.

함으로 지난해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 조국통일운동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천하제일의 통일강국으로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신념과 드림없는 의지, 불변불류의 로고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지난 한해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지금 온 겨레는 위대한 사상과 결출한 명도리, 한없이 고결한 인품을 지니시고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단방에 펼쳐주시었으며 2015년을 민족사에 아로 새겨질 뜻깊은 해로 장식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무한한 민족적경모와 자부심에 넘쳐있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리과 조국통일성업에 매진할 불라는 결의에 충만되어있습니다.

우리는 반세기전 그를 그 어떤 천재지번속에서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일심충정다해 받들고 따르는 강철의 진위대로 더욱 억세게 다져나가며 온 남대땅에 김정은승배열풍이 뜨겁게 휘몰아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주석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통일유훈과 업적, 경애하는 원수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방략들을 불변의 지침으로 삼고 력사적인 공동선언들을 고수령행하기 위한 투쟁을 즐기치게 벌어나감으로 자주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갔습니다.

우리는 각계각층을 받들어주시고, 반전평화투쟁에도 힘있게 불러일으키 미국과 천미시대핵세력의 북진전성도발기도와 동족대결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며 통일애국세력의 대연합을 이룩하여 보수집권세력의 반민주적, 반민중적, 반통일적악정에 무자비한 정벌의 철수를 내리겠습니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의연히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통일유산과 불변의 업적이 우리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 민족의 찬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민족자주위업의 전도는 양양하며 조국통일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오게 될것입니다.

반세기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태양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대대의 창창한 앞날을 위하여, 통일민족의 환호성이 삼천리 강산을 진감할 력사의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민족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반세기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제105(2016)년 1월 1일 서 울

## 재일 동포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 가 드 립 니 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한 천만군민의 총진군으로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전례없는 대박, 대혁신이 일어날 승리의 해 주제105(2016)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재일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는 조국청사에 특기할 혁명의 최전성기가 펼쳐질 새해 주제105(2016)년을 맞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전체 총련인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흥모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삼 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뜻깊은 새해를 크나큰 희망과 신심에 넘쳐 맞이한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명도리 우리 조국이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둘을 사회주의조선의 대정치축전으로 빛내고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청년강국의 위력을 단방에 떨친 력사적인 지난해를 한없이 긍지를 안고 돌이켜보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현실로 꽃피워 신군조선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천하제일강국으로 빛내이실 원대한 구상과 철의 의지를 안으시고 조국방 방방목목을 총력무진하시면서 천만군민을 주제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 총공격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새로운 조속속도창조의 열풍으로 미래과학기술과 과학기술전당, 백두산영웅평년발전소를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최상, 최고의 수준에서 우뚝우뚝 일떠세워 10년을 1년으로 앞당기는 천지개벽을 일으키고 자연재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라선에서 전위투쟁의 끝없는 기적이 창조되는 조국의 벽한 현실을 통하여 우리들은 인민적정치기의 최고귀망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우리 조국은 멀지 않은 앞날에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경제강국, 명명우거진 그 위용을 펼치게 된다 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우리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행사의 높은 연단에서 태양같이 환한 미소를 보내시고 인민에게 머리숙여 인사드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자하신 모습에서 인민들에게는 기쁨과 안락과 행복을 안겨주고 적대세력들에게는 공포와 파멸을 안기는 신군조선의 무전무강한 위력과 존엄을 보았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천리해인의 예지와 백승의 지략, 무비의 담력으로 우리 조국안에 조성되었던 위험천만한 사태를 평정하시어 빛나는 승리를 안아주시었으며 북남관계에서 새로운 전환의 길을 열어주시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적인 준동을 걸음마다 통쾌하게 짓부시고 편전현승을 이룩하며 세기를 주름잡는 기적과 세계를 앞서나가는 눈부신 비약으로 강성번영의 새시대를 펼쳐놓은 이 경이적인 사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명도의 빛나는 결실입니다.

진정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영원불로불락 번영하는 김일성민중, 김정일조선의 승리의 상징이시며 백두산봉우리대강국의 양양한 미래를 안아오시는 위대한 명도리이십니다.

지난해에 총련의장으로서 천하제일강국을 보내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련의장으로서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을 명도하시는 그토록 불망하신 속에서도 총련결성 60돐에 즈음하여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강명적서한 《위대한 김정일장군의 뜻을 받들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를 보내주시어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 재일조선인운동의 역사적리정표를 세워주시고 총련사업에서 전 한적극면을 열어주시었습니다.

재일동포들은 현실속 사방의 한복에 안아주시고 총련인군들을 해외혁명동지로서 믿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련결성 60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을 발돋움시키고 애국애국운동에 헌신하여온 총련인군들과 총련상공인들, 애국적 동포들에게 국가포장을 수여해주시는 최상의 은정을 베풀어주시었습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련결성 60돐을 맞으며 조국에서 중앙교회와 경축행사를 성대히 조직해주시고 재일조선인감사단과 총련로간대표단, 각계 총 동포들이 조국인민들과 함께 총련결성일을 기념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었으니 우리들은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뛰어오르는 경정을 금할수 없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의 손길과 재일동포자들에게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었으며 총련인군들과 동포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전대미문의 불법 무도한 탄압으로부터 총련조직을 굳건히 수호하여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명도와 은세로운 품이 있어 지난해에 총련은 결성 60돐을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애국애국의 한길을 걸어온 재일동포들의 뜨거운 총정심과 입심단결된 위력을 온 세상에 파시하는 대정치축전으로 빛나게 장식하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기 위한 애국애국사업에 힘있게 전진시켜올수 있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진행되는 역사적인 새해를 맞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의장에게 천하제일강국 새해 축하를 받아안은 우리들의 심정은 조국인민들의 총진군에 발돋움을 같이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명적서한과 새해축전에서 제시된 과업을 전민적으로 판철하기 위한 일대 진격전을 드세치게 벌어나갈 결같은 결의로 백백치고있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대로 총련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강위력한 주제적외교로 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운명의 운인, 민족의 아버지로 깊이 받들어모시고 일관단심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며 총련조직안에 주제의 사상체계, 명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겠습니다.

총련내외의 입심단결과 동포들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정속에 총련의 힘이 있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도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입심단결과 현연일체의 위력으로 내외원수들과 싸워 이겨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기어 올려나갔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총련의 5대교양을 확고히 틀어쥐고 신진교양실용을 더욱 집중적으로 벌어나감으로써 일군들과 동포들의 정신력을 크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새 전성기 애국애국도범창준동과 동포되찾기운동을 동포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추진하는 위대한 대중운동으로 발전시켜 광범한 동포들을 더 많이 묶어세움으로써 지부와 분회를 비롯한 총련의 기초조직들을 애국애국의 믿음직한 성원으로 굳건히 다져 나갔습니다.

동포들의 생활사환의 리익을 도모하는것을 최우선, 절대시 함으로써 총련조직을 동포들이 어머니품으로 여기고 전심으로 믿고 의탁하는 조직으로 꾸리며 투쟁으로 정취한 민족주의적진 쥔리력을 옹호확대해나갔습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몸소 가우어 꽃피워주시민 민족 교육사업을 총련의 중심과업으로 변함없이 틀어쥐고 재일동포 자녀들을 위한 중등교육시설 70곳과 조선대학교양림 60곳을 맞는 올해를 민족교육사업에서 자발한 성과를 빛내겠습니다.

우리들은 새 시대 일군들과 동포청년들이 애국애국의 길을 변함없이 억세게 걸어나가도록 하며 동포상공인들의 활동을 보호하고 성실성의로 발전시켜 그들이 총련애국사업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였습니다.

참된 어머니품인 사회주의조국의 존엄과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하고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운동에 특색있게 이바지하며 대외활동을 주동적으로 활발히 벌여 조일관계발전에 기여해 나갔습니다.

총련인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대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를 사업과 생활의 지침으로 삼고 늘 동포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생소감을 같이하며 동포들의 행복한 앞날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셨습니다.

그러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강명적서하신 구절마다에 뜨겁게 새겨진 심원한 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총련을 강위력한 주제적외교로조직으로 더욱 반석같이 다지며 모든 사업에 동포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동포중심, 청년중심으로 애국애국운동의 새 기상, 새 모습을 창조해나갈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조국과 더불어 총련의 운명이며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안녕은 우리 총련인군들과 재일동포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입니다.

**재일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주제105(2016)년 1월 1일 일 본 도쿄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주제105(2016)년 새해에 즈음하여 주조세계식량계획,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대표부 성원들이 꽃바구니들을 진정하였다.

그들은 탁월한 사상과 명도로 세계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주제105(2016)년 새해에 즈음하여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말이 적혀져있었다.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수단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하르툼 수단공화국 대통령 오마르 하싼 아흐마드 알 바쉬르각하

나는 수단독립 60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계속 확대발전되리라 하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평 양

주제104(2015)년 12월 31일

## 새해의 첫 소원

(사)

새월이 불러 찾아왔는가 소원에 실려 찾아왔는가 강산도 하늘도 거리고 정신난 대기도 흰눈같이 순결한 새해

부부는 천만가지 희망을 안고 새날의 창문을 열어 이 마음 달리는 당중앙장가 내 나라의 해가 뜨는 바로 그곳에 새해의 모든 소원은 실려있구나

기쁨도 시련도 원수님과 함께 온 한해를 담음처럼 살아온 우리 또다시 이룩할 전변들을 안아보이니 한해가 밝아라 눈부시리라

얼마나 벅한 기쁨이 경사로를 날파 날들이 우리를 맞이할 것인가 활짝 문이 열린 과학기술전당에서 온 나라 인민이 지식의 보화를 안고 메일을 향해 파도처럼 백두대지에 또 하나 새워질 새 발전소준공의 뜻깊은 그 순간도 눈앞인양 환희롭구나

원수님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우리 더 훌륭한 사람들을 알게 되리 전호가에서 기대앞에서 건설장과 전아에서 애국으로 사는 보석같은 삶들이 조국이 자랑하는 영웅으로 받들리우리

나는 바라노라 올해도 저 동서해포구마다에 만인의 배고픔소리 높이 울리기를 하여 온 나라 대가정의 집집마다에 사회주의마다항기 더욱 그윽히 넘치기를

소원이여라 저 세모동판에서 푸른 주단 펼쳐가는 나의 벗들과 함께 미래과학자거리 새 집을 받아안고 람구로 밤새우는 나의 스승들과 더불어

내 또한 일에서 눈부신 성과로 꿈같이 우리 원수님 만나뵈기를

그 누구의 가슴엔들 이런 소중한 꿈이 없으랴 우리의 손으로 우리 힘과 지혜로 새로운 창조물들 꽃피우려나

신문 경 가슴에 용솨는 이 열정으로 한해갈도 우리 한담을에 가리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이 한해에 10년을 주름잡으리

우리 수령님들의 념원을 꽃피우시며 이해도 이어가실 끝없는 김 그이의 자유자유 따르시며 숫논처럼 잘갈한 마음들이 다함없는 축원을 삼가 드리는 새해의 이 아침

새해의 소원중의 첫 소원 는 나라 대가정의 제일 큰 소원은 우리에게 가장 귀중하신분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뿐이거니

내 조국강산아 새해의 아침해처럼 언제나 밝으신 원수님의 미소로 더 눈부시게 아름다와지라 희망의 해 조년의 해 2016년이여!

## 13만산대발파 성과적으로 진행

혁신의 기상 나래치는 해산-삼지연넓은철길건설장에서 13만산대발파의 장대한 피성을 울리었다.

대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공사에 필요한 많은 량의 토량이 마련되었다.

삼지연지구를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사회주의선경으로 거꾸 올름리 우리 대안 당의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갈 총정의 일념안고 건설장에 달려온 그날

해산-삼지연넓은 철길 건설장에서 부터 줄기찬 투쟁을 벌여온 남포시러단의 돌격대원들과 지휘관들이 철길로만행성을 위한 대발파준비작업에서 날에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다.

이곳 지휘관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받은 정치적인 의지와 전례없는 로력적성파로 맞이하기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기수, 전위투사가 될 드높은 열

의면에 들끓는 공사장들에 나가 힘있는 화신식정지사업으로 온 건설장을 혁명열, 투쟁열로 부글부글 끓여내지게 하였다.

로력과 기계설비들을 합리적 으로 배치하고 과학자들과의 밀한 협조밑에 발파준비에서 건 거를 부잡하고 어려운 기술적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해 나 갔다.

돌격대원들은 과학적인 지질 조사와 측량에 기초하여 발파효율을 높일수 있게 장악실들의 위치를 정한데 맞게 마카시는 에로와 단판을 파감히 뚫고 굴진속도를 최대한 높여나갔다.

북방의 땀만 추위속에서 도 이 들은 중대, 대대사이 사회주의 경쟁을 힘있게 벌이며 수십개의 발파구멍들을 짧은 기간에 완

성하고 장약작업을 다그쳐 지난해 12월 30일 13만산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대발파에서 성공한 남포시러 단안의 돌격대원들과 지휘관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이 깃들여있는 성스러운 력사의 땅에 로동당시대를 빛내시는 또 하나의 창조물을 하트발리 일떠세를 축원한 기세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조선중앙통신】

